

# 20이닝 연속 무득점... 깨어나라, 방망이



임기영

## T 타이거즈 전망대

지난주 1승 3패 초라한 성적  
양현종·브룩스 선발진 호투 무색  
타자들 일제히 침묵의 방망이  
4위와 격차 넓히고 6위와 좁혀져

이번주 한화·NC와 6연전

테이블세터, 타선 활로 뚫어야  
오늘 임기영 출격...연패 탈출 기대

침묵의 방망이가 깨어나야 한다. KIA 타이거즈는 사직, 고척으로 이어진 원정 6연전에서 1승 3패(두 경기 우천취소)의 전적에 그쳤다. 4위 추격을 목표로 했던 원정길에서 아쉬운 패배들이 쌓이면서 6위와의 격차는 3경기 차에서 1.5경기 차로 줄었다. 4위는 1.5경기 차에서 2경기 차로 한 발 멀어졌다. 타선의 침묵 속에 키움에 다시 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고, 일요일 경기에서만 7연패를 당하고 있다. KIA는 브룩스의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지난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문경찬이 2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사 만루에서 김준태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으면서 승리는 행하지 못했다. 비로 시작에서의 두 경기를 치르지 못한 KIA는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46	32	0	14	0
2	키움	48	30	0	18	3
2	두산	47	28	0	19	4.5
4	LG	47	27	0	20	5.5
5	KIA	45	24	0	21	7.5
6	삼성	48	24	0	24	9
7	롯데	45	22	0	23	9.5
8	KT	47	21	0	26	11.5
9	SK	47	14	0	33	18.5
10	한화	48	12	0	36	21

이민우와 임기영에게 휴식을 주면서 마운드 재정보를 한 채 고척으로 향했다. 열세 만회를 목표로 했던 고척 3연전의 출발은 좋았다. 최형우의 역전 만루포를 앞세워 승리로 첫 경기를 시작했지만 이후 두 경기는 영봉패로 끝났다. 양현종과 브룩스가 각각 6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불펜진도 무실점으로 남은 이닝을 책임져줬지만, 타자들이 응답하지 못했다. 두 경기에서 2안타 씩만 기록되면서 단 한 명의 주자도 홈에 들어오지 못했다. 결국 20이닝 연속 무득점 속에 KIA는 키움전 루징시리즈와 일요일 7연패를 기록했다. '테이블 세터'가 부지런히 공격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한다. 영봉패가 기록된 두 경기에서 김호령과 함께 부상에서 돌아온 김선빈이 나란히 1·2번에 섰지만 테이블세터는 단 두 차례 출루에 그쳤다. 김호령이 끈질기게 승부를 하고 있지만 운이 따르지 않고 있고, 김선빈은 복귀 후 3경기에서 모두



김호령



김선빈

안타는 기록했지만 필요한 순간의 움직임이 아쉬웠다.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초반 기싸움에서 테이블세터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KIA는 이번 주 최하위 한화 이글스와 1위 NC 다이노스를 연달아 만난다.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상태, KIA 입장에서 오히려 안방에서 만나는 한화와 승부가 부담스럽다. 무조건 우위를 점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최하위'와 승부를 벌이게 됐다. 등판을 한번 거르면서 에너지를 비축한 임기영이 친정을 상대로 새로운 한 주를 연다. 임기영은 앞서 6월 4경기에 나와 2.01의 평균자책점으로 패없이 3승을 기록했다. 6월 마지막 날, 임기영이 자신의 연승을 잇고 팀의 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반에만 경고장 8개... 전남, 격투 끝 첫 연패 '쓴맛'

'K리그2' 전남, 수원에 1-2...내일 경남FC와 FA컵

전남드래곤즈가 시즌 첫 연패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 28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0K리그2 8라운드 수원FC와 경기에서 1-2로 졌다. 앞선 대전 원정에서 무패행진이 중단됐던 전남의 시즌 첫 연패다. 수원이 승점 2점 차로 앞서고 있었던 만큼 전남으로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였다. 전경준 감독은 새로 전남 유니폼을 입은 우즈베키스탄 국가대표 율렉과 강원FC에서 영입한 김현욱을 선발 출장시키는 등 라인업에 변화를 주며 수리 사냥에 나섰다. 전반전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전반전에만 8장의 경고카드가 나올 정도로 두 팀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지만 골은 기록되지 않았다. 후반전 수원FC가 먼저 골망을 흔들며 팽팽하던 경기의 흐름을 짚었다. 후반 16분 프리킥 상황에서 박민규가 문전으로 띄운 공을 조유민이 헤더로 연결하면서 전남 골대를 갈랐다. 3분 뒤에는 장성재의 패스를 받은 다닐로가 머리로 득점에 성공했다. 전남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후반 21분 율렉이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크로스를 공이 즐리안의 발에 미치지 못했다. 급하게 상대 수비수가 머리로 걷어낸 공이 문전에 있던 이종호 앞으로 향했다. 이종호가 조유민과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원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수원FC의 골대 오른쪽을 뚫었다. 5년 만에 친정에 복귀한 '광양 루니' 이종호의 시즌 첫 골이었다. 전남은 후반 29분 또 다른 이적생 인찬을 투입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려고 했지만 아쉽게 경기는 1-2 패배로 끝났다. 승리는 행하지 못했지만 이종호의 마수걸이 골이 터졌고,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새 자원들의 기량을 점검했다는 부분이 전남에 위안이 됐다. 패배로 6월을 마무리한 전남은 7월 반격에 나선다. 7월 1일에는 경남FC와 오후 7시 FA컵 경기를 치르고, 4일 오후 6시에는 안산그리너스와 정규리그 9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두 경기 모두 안방에서 진행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이종호가 지난 28일 광양전용축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슛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 '언터처블' 존슨

PGA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13시즌 연속 우승...나상욱 5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손꼽는 장타자 더스틴 존슨(미국)이 13시즌 동안 내리 우승을 이어가는 위업을 쌓았다. 존슨은 29일(한국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 리버 하일랜드(파70)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9언더파 261타로 정상에 올랐다. 이번 시즌 첫 우승을 올린 존슨은 신인이던 2008년부터 13시즌 동안 해마다 한 번 이상 우승하는 대기록을 이어갔다. 아널드 파머(미국)와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나란히 세운 17년 연속 우승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역 선수로는 14시즌 연속 우승의 타이거 우즈(미국) 다음이다.

존슨의 주무기는 무시무시한 장타와 정확한 아이언 샷이지만 이날 우승의 일등 공신은 퍼터였다. 브랜던 토드(미국)에 2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존슨은 8번(파3), 9번(파4), 10번 홀(파4) 연속 버디로 선두로 치고 나갔다. 8번 홀에서는 8m 버디 퍼트를 집어넣었고, 10번 홀에서는 그린 밖 7.5m 거리에서 퍼터로 친 샷이 들어가 버디를 잡았다. 위기 역시 퍼트로 극복했다. 티샷이 OB구역으로 날아간 13번 홀(파5)에서는 3m 보기 퍼트를 집어넣어 손실을 최소화했다. 14번 홀(파4) 5m 버디로 숨을 돌린 존슨은 15번 홀(파5) 티샷이 그린 왼쪽 워터해저드에 빠질 뻔한 위기를 맞았다. 신발을 벗고 쳐냈지만, 그린에 못 올라가 타수를 잃는가 했지만 까다로운 1.2m 퍼퍼트를 어김없이 넣었다. 그는 16번홀(파3)에서 티샷이 병커에 빠진 바람에 1타를 잃어 케빈 스트릴먼(미국)에 1타차로 쫓겼지만, 남은 2개홀을 파로 막아냈다. 재미교포 케빈 나(한국이름 나상욱)가 3타를 줄여 5위(16언더파 264타)를 차지했다. 노승열(29)과 김시우(25)는 나란히 공동 11위에 올랐다. 강성훈(32)과 안병훈(29)은 공동 46위(7언더파 273타)에 그쳤고 임성재(21)는 공동 58위(2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 1골 1도움... 황희찬, 팀에 안긴 우승

FC 잘츠부르크, 하트베르크에 3-0 승...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7연패

'황소' 황희찬의 멀티 공격포인트를 앞세운 FC 잘츠부르크가 7시즌 연속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우승을 조기 확정했다. 잘츠부르크는 29일(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레드불 아레나에서 열린 TSV 하트베르크와 2019-2020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30라운드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 활약을 펼친 황희찬의 원맨쇼를 앞세워 3-0으로 승리했다. 승점 44를 쌓은 잘츠부르크는 2위 라피드 빈(승점 35)과 승점 차를 9점으로 벌리면서 이번 시즌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우승 트로피의 주인이 됐다. 이로써 잘츠부르크는 2013-2014 시즌을 시작으로 무려 7시즌 연속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왕좌를 지켰다. 황희찬의 활약이 눈부셨다. 펠손 다카와 함께 4-4-2 전술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나선 황희찬은 추가골과 쐐기골 도움을 기록하며 1골 1도움

으로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이번 공격포인트 황희찬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11골 11도움을 기록했다. 전반 45분 안드레 하말류의 헤딩 결승골로 승기를 잡은 잘츠부르크는 후반 8분 황희찬이 오른쪽 측면에서 알버트 발치가 투입한 크로스를 페널티 티지역 중앙에서 헤딩슛으로 추가골을 꽂았다. 황희찬의 시즌 16호골(정규리그 11골·컵 대회 1골·UEFA 대항전 4골)이자 리그 11호골이었다. 황희찬은 후반 14분 다카의 쐐기골까지 도왔다. 도미니크 소보슬라이가 찢러준 볼을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받아 강한 원발슛을 시도한 황희찬은 볼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왼쪽 구석에서 다시 문전으로 투입했고, 골지역 정면에 있던 다카가 오른발로 밀어 넣어 쐐기골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광주 FC 10주년 유니폼 확정



광주FC의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이 결정됐다. 광주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팬을 대상으로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 선정 투표를 진행했다.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투표는 3개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투표 결과 지난 3월 진행된 10주년 유니폼 공모전 당선작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 유니폼은 축구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모습을 표현한 패턴을 바탕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비상의 빛을 대각선 줄로 표현해 멋을 더했다. 양팔 소매에 10주년 슬로건을 넣어 올 시즌 의미도 강조했다. 광주는 광주전용구장 개장 경기에 맞춰 선보일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강정호, 키움 복귀 철회

강한 비난 여론을 만난 강정호(32)가 KBO리그 복귀 뜻을 접었다. 강정호는 29일 자신의 SNS에 "긴 고민 끝에 조금 전 허어르즈에 연락해 복귀 신청 철회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었던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당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2017년을 원 강정호는 2018년 메이저리그로 돌아갔지만, 2019 시즌이 끝난 뒤 방출됐다.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위해 지난 5월 20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KBO가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리면서 복귀 문은 열렸지만,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강정호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지만 팬심을 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